불생불멸 얻는 것이 佛法의 핵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㉒ 주객미분전(主客未分前)

"여러분! 대장부는 오늘 당장 본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단지 그대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생각마다 밖으로 찾아나서 본래 있는 자기 머리는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찾으려고 헤매는 꼴이 되어 스스로 쉴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 저 원돈보살(圓頓菩薩)마저 법계에 들어가 몸을 나타내어 정토를 향하면서 범부를 싫어하고 성인을 좋아하니 이런 사람들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분별심이 남아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선종의 견해는 그렇지 않아 바로 현재 지금뿐이요. 더 이상 다른 시절이 없는 것이다.

산승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그때그때 병을 따라 약을 쓰는 것일 뿐 따로 실다운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만 알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며, 하루에 만 량의 황금도 소화할 수 있느니라."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육조단경〉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다. 본래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주객미분전(主客未分前)'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망념이 되어 생사심(生死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부질없는 망념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만들어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말이다. 중생은 곧잘 미혹한 생각을 일으켜 자신의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갇혀버린다. 깨닫는 순간을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진다(前念後念斷)"고 표현하는 말도 있고 또 생멸이 본래 없다는 뜻을 시간적으로 표현해 "전제(前際)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후제(後際)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非前際生 非後際滅)"는 말도 〈기신론〉 등에 설해져 있다. 과거 어느 때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로 마치 허공처럼 생멸이 없다는 것이다. 생멸을 떠나 불생불멸을 얻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이를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는다고도 한다.

"자기 머리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찾는다"는 말은 〈능엄경〉에 나오는 '연야달다(演若達多)' 이야기다. 〈능엄경〉 4권에 나오는 이야기로 실라벌성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미목(眉目)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다가 머리를 돌리니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광기가 발동한 연야달다는 자기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머리를 찾아 거리를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자신 안에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없다고 여겨 밖으로 나가 찾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다. 경에서는 또 "미친 마음이 쉬면 곧 보리(狂心歇卽菩提)"라는 말도 나온다. 연야달다가 광기가 발동하여 머리가 없어졌다고 찾아헤맸을 뿐 제 머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돈오를 내세우는 선종에서는 수행의 지위를 두지 않는다. "한 번 뛰어 바로 여래지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하여 찰나에 깨달음을 얻는다 한다. 경절문(徑截門)이라 하여 둘러가는 방편의 길을 모두 버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간화선(看話禪)에서 화두(話頭)를 드는 것이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무자(無字) 화두에 대하여 말하기를 "화두를 공부하여 가장 빠르게 깨닫는 선문(禪門)의 방법에 있어서 화두라는 것은 모두 불법(佛法)을 알음아리(知解)로 이해하려는 병통을 가려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무자(無字) 화두는 마치 가까이하면 얼굴까지 태워 없애는 한 덩어리 불과 같다. 거기에는 불법에 대한 알음아리가 붙을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는 이 무자는 악지악해(惡知惡解)를 쳐부수는 무기라고 했다"고 하였다. 수행의 깊은 경지는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므로, 말로 설명하는 것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방편도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수행 자체에 어떤 법도 실법(實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제는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출가자가 되며 시은(施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초기 선종, '제불심제일' 능가종



세상 속 경전읽기

㉒ 사종선(四種禪)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는 2조 혜가(慧可, 487-593)에게 4권 〈능가경(楞伽經)〉을 주면서 법을 전하니, 이른바 중국 초기 선종은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 제불의 심(心)이 제일, 곧 일체유심(一切唯心)]의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능가종(楞伽宗)이다.

붓다가 능가산에서 대혜(大慧)보살을 위해 설한 경전인 〈능가경〉을 달마대사는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라고 하였다. 능가(Laṅkâ)는 '가기 어려움[不可往]', '들어가기 어려움[難入]'. '이르기 어려움[不可到]' 등으로 뜻번역되고, 스리랑카를 뜻하기도 하고, 스리랑카의 아담봉(Adam's peak)을 뜻하기도 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능가경〉의 한역본으로는 1) 구나발타라가 CE 443년에 번역한 〈능가아발다라보경〉 4권, 2) 보리유지가 CE 513년에 번역한 〈입능가경〉 10권과 3) 실차난타가 CE 700~704년에 걸쳐 번역한 〈대승입능가경〉 7권 등 세 가지가 있다. 달마대사 때에는 1), 2)만 있었고, 4권본인 〈능가아발다라보경〉을 혜가에게 전한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능가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능가경소〉 〈능가경요간〉 〈능가경종요〉 〈입능가경소)〉 〈능가종요론〉 등을 저술하였으나 실전(失傳)되었다. 원효대사 때에도 1), 2)만 있었다.

〈능가경〉 '집일체법품 제2의 3'에서, 선(禪)을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 관찰의선(觀察義禪), 반연진여선(攀緣眞如禪), 제여래선(諸如來禪)의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무아의 자각 정도와 수인증과(修因證果)에 따른 분류이다.

무아에는 '인(人)무아'와 '법(法)무아'의 2무아가 있다. 사람은 오온이 일시적으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오온이 흩어지면 사람이 없으나, 오온은 있다는 것이 인무아이다. 법무아는 오온 각각 역시 여러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항상 불변하는 오온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도 없고 오온[곧 제법(諸法)]도 없다는 것이 2무아이다.

사종선 중 1) 우부소행선은 소승의 수행자가 인무아를 알고, 무상(無常)·고(苦)·부정(不淨)을 자각하여 행하는 수행이고, 2) 관찰의선은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법무아를 알고, 그 이치에 따라 대상을 자세히 주시하는 수행이고, 3) 반연진여선은 이(二)무아의 분별마저 떠나, 무아라는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며, 4) 여래선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여러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수행이다. 1)~3)이 닦는 원인(修因)이 되어 4)의 결과를 증명[證果]하는 것이다.

"또한 대혜여! 4종선이 있나니, 우부소행선, 관찰의선, 반연진여선, 제여래선이 그것이다. 대혜여! 우부소행선이란 무엇인가? 성문 연각의 모든 수행자가 인무아를 알며, 자타의 몸이 (잠시) 뼈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이들은 모두 무상·고·부정한 모습이라고 확고히 관찰하고 놓치지 않으면, 점차로 수승해져서 무상멸정[無想滅定, 무수멸정(無受滅定)의 다음단계로 보살 제6지에 해당]에 이르나니, 이를 우부소행선이라 하느니라.

관찰의선이란 무엇인가? 개아(個我)가 무상·고·부정의 인무아임을 이미 알고 또한 외도의 자타분별을 떠나, 법무아의 여러 위차의 모습과 뜻을 따라 관찰하는 것이니라.

반연진여선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인무아와 법무아를 분별하는 이무아도 허망한 생각이니, 이를 여실히 알아 무아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여래선이란 무엇인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성스러운 지혜를 자증[自證, 스스로 깨달아 앎]하는 3종락[천락(天樂)·선락(禪樂)·열반락(涅槃樂)]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이니라."

〈大乘入楞伽經 T0672_.16.0602a10-2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8

참회, 미래 창조하는 에너지

몇 해 전부터 불교대학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참회, 발원의 날'로 정해서 108배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가오는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조계종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 영상에 맞춰 절을 하다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학인들도 보인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룩한 눈물이기도 하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붓다 당시에도 여러 참회의식들이 있었다. 아무리 수행이 잘 된 사문이라 해도 수백 조항에 달하는 계율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계율은 범(犯)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역설도 등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어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계율을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깨침의 길을 가는 데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붓다는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자자(自恣)와 포살(布薩)과 같은 참회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자자란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의식이다. 붓다 당시 비가 많은 우기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집중수행을 하였는데, 이를 안거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전승되어 우리의 경우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는 하안거(夏安居),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 동안거(冬安居)를 실시하고 있다. 자자는 안거 동안 저지른 잘못을 참회함으로써 업장(業藏)을 털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의식이다.

〈율장〉에는 붓다가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자자를 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의식이 시작되면 가장 어른인 붓다가 대중들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면 대중들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킨다. 침묵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의 참회가 끝나면 차례대로 5백 명의 비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이어간다. 그 당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정 승단이 잘 유지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자자 이외에도 포살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매월 1일과 15일에 승가의 구성원이 모여서 계율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참회하는 의식이다. 포살이 시작되면 대중들은 계율을 함께 외우고 사회자는 대중들에게 조금 전에 합송(合誦)한 계율을 범한 일이 없느냐고 묻는다. 예컨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면, 그런 일을 행한 비구는 대중들 앞에서 참회하면 된다. 사회자가 세 번 질문할 동안 대답이 없으면, 잘못한 대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재가자의 경우 포살일이 되면 사찰을 방문하여 예불에 참여하고 법문을 듣기도 하였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의식도 별도로 있었는데, 매월 8일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여섯 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전한다. 이날에는 여덟 가지 계율(八齋戒)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8재계란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5계(戒)에다 ⑥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않고 ⑦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⑧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세 항목이 더해진 것이다.

중국 고전인 〈중용〉에 "은밀한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莫見乎隱),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莫顯乎微)"는 구절이 나온다. 아무리 은밀하고 작은 일이라도 양심(良心)에 비춰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법이다. 스스로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끄러운 행동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고 잘 드러난다고 한 것이다. 〈중용〉에서 홀로 있을 때 행동을 삼가는 신독(愼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회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알고 있는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염불이 힘들면 스트레스 누적이 만성피로!
염불이 편하면 수천번의 힐링이 무병장수!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는 서울서 김해로 사업체를 옮긴 후 중·저음 사운드 시설로 염불이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 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